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5-1】

2015. 1. 12.

국제유가 하락이 중동·아프리카 산유국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목 차

I. 국제유가 하락세, 당분간 지속될 전망	1
II. 산유국, 재정수지 악화 우려 고조	3
III. 유가하락에 대한 주요 산유국들의 입장	4
IV. 향후 전망	7

해외경제연구소

작성: 팀장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

확인: 소장 임병갑 (3779-5701)
jykim@koreaexim.go.kr



■ 작년 6월 이후 국제유가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산유국들이 수출액 감소, 재정수지 적자 전환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유가하락이 중동·아프리카 지역 주요 산유국들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의 상황 진행을 전망해 보고자 함.

I. 국제유가 하락세, 당분간 지속될 전망

□ OPEC의 산유량 감축 무산으로 저유가 지속 전망

- 국제유가 하락세가 계속되자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11월 28일 회의를 개최하여 산유량 감축 문제를 논의하였음. 동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등 일부 회원국들이 감산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하여, 2011년 12월 합의된 하루 3,000만 배럴의 산유량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OPEC의 감산 합의 실패로 11월 28일 하루에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각각 배럴당 4달러, 6% 이상 폭락하여 201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합의 실패로 인해 2014년 6~7월 이후 현재까지 50% 이상 하락한 가운데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라크의 IS 사태, 리비아의 무정부 상태 등이 원유생산을 저해하여 유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던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이라크와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점도 유가하락에 일조하고 있음.
- 국제유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①세계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른 원유 수요 부진, ②고유가 시기의 생산설비 증대와 미국산 셰일오일 공급에 따른 원유의 공급 과잉, ③미국 양적완화 종료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등이 꼽히고 있음.



지난 1년간 국제유가 동향 (2014.1.8 ~ 2015.1.8)



* 2015. 1. 8자 뉴욕상업거래소(NYMEX) 기준.

□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장 패권 장악을 위한 치킨 게임 시도

- OPEC은 2014년 12월 10일 발표한 월례보고서를 통해 2015년 OPEC 회원국산 원유에 대한 전 세계의 일일 수요가 2014년의 2,940만 배럴보다 적은 2,892만 배럴로, 현재 OPEC의 일일 생산량 쿼터인 3,000만 배럴보다 100만 배럴 이상 적어 공급초과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음.
- 그러나 OPEC 원유생산량의 31.5%를 차지하는 OPEC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저유가 지속을 통해 셰일오일·셰일가스의 가격경쟁력을 상실시켜 미국의 셰일오일·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을 몰락시키고 러시아, 멕시코 등 OPEC 비회원국들의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린 뒤 석유시장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치킨 게임을 시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나이미 석유장관은 2014년 12월 22일 석유전문지 MEES와의 인터뷰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에 나설 경우 러시아, 브라질, 미국 셰일오일 업계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길 수 있으며, 유가가 배럴당 20달러까지 떨어져도 OPEC은 감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알-나이미 장관의 발언은 OPEC 원유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며 수십년 간 생산량 조절을 통해 가격 조정자의 역할을 해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역할을 포기한다는 선언으로 여겨짐. 아울러 OPEC의 원유시장 전략의 중심축이 유가 안정에서 시장점유율 확보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함.
- OPEC은 세계 원유매장량의 72%를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량 비중은 42% 수준으로, 매장량에 비해 생산량 비중이 낮은 것은 회원국의 원유 판매수익 증진을 목표로 생산량을 조절해왔기 때문임.

II. 산유국, 재정수지 악화 우려 고조

□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전환 전망

- 국제유가 하락세의 지속은 그 동안 석유수출에 힘입어 흑자를 유지해온 중동·아프리카 산유국들의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IMF는 현재의 저유가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규모가 작은 바레인의 경우 2016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5.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도 2017년에 재정수지가 GDP 대비 각각 1.8%와 1.3%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세계은행의 2012년 자료에 의하면, GDP에서 석유 수출 및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쿠웨이트(54%)와 리비아(52%)이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46%), 이라크(45%), 앙골라(42%) 등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재정수지 적자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특히,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은 석유수출 수입(收入)을 통한 대규모 재정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각종 대규모 인프라 투자사업 추진과 대국민 복지혜택 제공 등을 계속해 왔으나,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전환시 투자사업에의 차질과 복지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들은 유가가 배럴당 최소 100달러 이상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균형재정의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나, 유가하락이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긴축 재정정책의 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됨.
- 이는 투자 및 소비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아랍의 봄” 이후 정치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복지혜택으로 무마해온 중동 산유국들에서 사회불안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음.

주요 산유국들의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유가수준(브렌트유 기준)

(단위 : US\$/배럴)

구 분	국 가	2014년	2015년
OPEC 회원국	리비아	317	184
	베네수엘라	161	151
	알제리	132	131
	사우디아라비아	98	103
	이 란	131	131
	이라크	111	101
	아랍에미리트	79	77
	카타르	55	60
	쿠웨이트	54	54
OPEC 비회원국	오 만	99	103
	바레인	125	127
	러시아	105	107
	예 멘	160	145

자료: MEES, IMF, Citi Research.

Ⅲ. 유가하락에 대한 주요 산유국들의 입장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수입의 90%를 석유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나, 유가하락이 가속화되더라도 OPEC 산유량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거듭 천명하고 있음. 따라서 일각에서는 빠르면 당장 2015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재정부는 12월 25일 2015년 예산을 2014년의 1조 460억 리얄(2,787억 달러)보다 31.6% 적은 7,150억 리얄(1,907억 달러) 규모로 수립했다고 밝혔음. 아울러 2015년 정부지출은 2014년 책정규모보다 0.6% 증가한 8,600억 리얄(2,293억 달러)로, 1,450억 리얄(386억 달러)의 적자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에 대하여 IMF는 1.6%로 2014년(5.2%) 대비 감소하겠지만 흑자 기조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EIU는 -4.8%로 적자 전환을 예상하였음.
-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금융권에서의 차입, 석유화학 및 비석유 부분의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기조의 유지, 그리고 막대한 외환보유고(2014년 말 7,500억 달러 추정)가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IMF는 사우디아라비아 경제가 비석유 부문 중심의 수출·투자 증대로 2015년 4.5%의 성장을 기록하는 한편,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인한 수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12.4%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는 5,090억 달러(약 559조 5,000억원) 규모의 자국 주식시장을 내년 4월부터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2월 27일(현지시간) 보도하였음.
- 이에 따라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이외 국가의 투자자들도 아랍권 최대 규모인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음. 그 동안 GCC 회원국 이외 국가의 투자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해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투자해 왔음.
- 이번 조치로 사우디아라비아 증시에 최소 400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석유 부문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약 1,3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증시 개방도 이 계획의 일환으로 알려짐.

□ 아랍에미리트

- 아랍에미리트(UAE)는 OPEC 산유량 문제에 있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동일한 입장을 천명하였음.
- UAE의 연방 에너지부 장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까지 하락한다 해도 자국 정부는 최소 3개월 이상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음.
- 2015년에도 국제유가 하락세와 복지 강화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 지출의 증가가 지속되겠지만, 재정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2015년 UAE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에 대하여 IMF는 6.2%로 2014년 (6.3%)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EIU는 1.3%로 현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두 기관 모두 재정수지 흑자 기조의 유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 UAE 역시 자국 금융권에서의 차입, 비석유 부문의 수출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흑자 유지, 오일머니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따른 비교적 안정적인 외환보유고(2014년 말 734억 달러 추정)와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가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UAE 국부펀드의 총액규모는 최소 0.9조 달러로 추정됨.

□ 이 란

- 원유 수출이 재정수입의 약 60%를 차지하는 이란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해 이미 재정수지 적자 상태에 놓여 있어, 여타 중동 산유국들보다 타격이 더욱 큰 상황임.
-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에 따른 국영 석유회사의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와 국영기업 민영화 부진 등으로 2014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1%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 UAE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에 대하여 IMF는 -2.2%, EIU는 -1.4%로 공히 적자 기조 유지를 전망하고 있음.
- 이란은 그동안 서방에 맞서 러시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왔으나, 산유국인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서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루블화 가치 하락, 재정수지 악화 등의 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은 경기 둔화로 이란산 원유의 수입수요 감소가 예상됨.
- 저유가 지속은 향후 핵협상과 관련하여 이란에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내부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분석가들은 이란 정부가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란 내 강경파들은 '서방에 굴복하는' 수준의 핵협상 타결(즉 Arak 중수로의 불가동, 원심분리기 보유대수 축소 등)에 반대하고 있으나, 온건파들은 경제제재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핵협상 타결을 위해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나이지리아

- 석유 부문이 GDP의 14%,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재정수입과 외환보유액, 통화가치가 동반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음.
-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재정수지는 2014년 GDP 대비 1.7%의 적자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지출 증가가 2015년의 대선·총선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재정적자 지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2015년 나이지리아의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에 대하여 IMF는 -2.2%, EIU는 -2.3%로 공히 적자 기조 유지를 전망하고 있음.
- 이에 나이지리아 정부는 2015년 예산안 규모를 금년보다 대폭 감소한 230억 달러로 확정하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도 2014년 11월 기준금리를 기존의 12%에서 3년 만에 13%로 인상하는 등 대응조치를 내놓고 있음.

IV. 향후 전망

□ 국제유가, 금년 중 배럴당 50~60달러 지속 가능성

- OPEC의 산유량 유지 발표로 인해 국제 원유시장의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S&P는 국제유가 전망치를 전면 하향 조정하였음.
- S&P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의 2015년 배럴당 가격 전망을 75달러에서 65달러로, 2016년 예상치는 80달러에서 70달러로 낮추었음. 아울러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의 2015년 배럴당 가격 전망도 80달러에서 70달러로, 2016년 예상치는 85달러에서 75달러로 낮추었음.
- 한편 Morgan Stanley는 금년 2/4분기에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4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으며, Bank of America도 배럴당 50달러 선까지 추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음.
-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고비용 유전들이 가동 중지해 들어가는 상황이 확산될 경우 산유량이 줄어들면서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중반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



□ 미국 정부, 세일오일 수출 허용으로 유가하락 가속화 전망

- 이러한 와중에 미국 정부는 2014년 12월 30일 자국산 원유의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전격 발표하였음.
- 미국은 1973년 발생한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자국산 원유 수출을 금지해 그동안 세일오일 수출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자금 압박이 커진 세일오일 생산업자들이 미국 정부에 경질유 수출 허용을 거듭 요청해왔음.
- 미국 정부가 자국의 세일오일 수출을 허가함으로써 국제유가 하락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등에 현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중동 산유국들, 재정 압박으로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감축

- 국내 건설업체들의 전체 해외 수주금액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중동 산유국들은, 원유 공급과잉 우려와 미 달러화 강세 영향 등으로 유가가 폭락하고 채산성이 악화되며 재정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원유·천연가스 개발 계획을 미루면서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발주액이 감소하고 있음.
-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중동·북아프리카(MENA) 국가 전체의 건설 프로젝트 발주액은 817억 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분기 들어 발주액이 감소하면서 3분기에는 최근 3년 중 최저치인 305억 달러로 위축되었음.
- 이는 우리 기업들의 주요 중동 산유국에서의 프로젝트 수주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건설사가 최대 해외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014년 중 수주한 공사계약액은 전년 대비 70.4% 급감한 29.5억 달러에 그쳤음.
- 현재의 저유가 추세가 장기화되어 산유국들의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지면, 석유 관련 플랜트는 물론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일반 건설 프로젝트 발주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

작성 : 해외경제연구소
탐장 오경일 (3779-6664)
oki1122@koreaexim.go.kr